

본격적인 문법 공부에 앞서, 수능 문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돌아보다 :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수능 국어 영역 언어(문법) 파트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교과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

② 문제와 <보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캐치하고 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독해력'

①에 대한 준비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②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국어' 영역이라는 것을 상기했을 때 '독해력'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혹은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분명 우리가 아는 개념만을 묻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봤을 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실제로 언어(문법) 파트의 문제 중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천천히 살펴 보면, 지엽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뜯어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선 그 개념을 묻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독해'의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테마별 기출문제를 풀 때 자동으로 가져 주셔야 하는 태도예요.

- 1) 발문 독해 : 문제의 발문을 천천히 '독해'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지 생각하기
- 2) <보기> 독해 : <보기>의 내용을 천천히 '독해'하며 1)에서 생각한 내용 적용하기
- 3) 선지 독해 :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1)+2)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 고르기

물론 이 과정을 모두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문제에 주어진 모든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엄청난 무기가 될 거예요.

아직까진 너무나 추상적이죠? 실제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일명 '바투' 문제입니다. 미리 풀어보세요.

<주의>

만약 문법 개념 정리가 아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theme 1로 넘어가서 모든 학습을 마친 뒤, 마지막 theme를 공부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9.11

[보기]

- ㉠ 약속 날짜를 너무 발게 잡았다.
 ㉡ 서로 발게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 쥐었다.

: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발다

1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2 길이가 매우 짧다.

새로 산 바지가 발아 발목이 다 보인다.

3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발아서 큰일이야.

㉠

① 발게_ㄱ

② 발게_ㄴ

③ 발게_ㄷ

④ 바투_ㄱ

⑤ 바투_ㄴ

㉡

㉠

㉡

㉢

㉣

㉤

㉢

㉠

㉡

㉢

㉣

㉤

이 문제를 앞에서 제시한 태도에 맞춰 해결해봅시다.

1) 발문 독해 :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에 들어갈 말인데, ㉠는 ‘표제어’라고 합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단어의 ‘원형’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용언, 활용형, 표제어 등의 개념이 바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채

워 오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단어의 ‘원형’을 찾아 ㉠에 넣어 주면 됩니다.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했네요. ㉡와 ㉢는 ‘예문’에 해당하니, 적절한 의미에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2) <보기> 독해 : <보기>를 보니, 우리가 찾아야 할 ㉠의 후보는 ‘발게’와 ‘바투’입니다. ‘바투’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들어본 수험생이 대다수여서 혼란을 겪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미 1번 단계에서 단어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한 채로 ‘발게’와 ‘바투’를 바라보니, ‘-게’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게’는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부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이럴 때 써먹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공부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열심히 공부한 ‘전성 어미’ 관련 개념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겠죠?

아무튼, ‘발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쓰인,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애타게 찾던 ‘원형’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보기>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부사형 전성 어미’라는 개념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풀어야 문제가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발다’의 활용형 ‘발게’가 쓰인 ㉠, ㉡은 ㉢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읽어낼 수 있겠죠? ㉢는 ‘발다’와는 다른 단어인 ‘바투’의 예문이니깐요.

3) 선지 독해 :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살펴보니, ㉢는 ㉠으로 고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은 볼 필요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상이나 물체 사이의 거리’라는 뜻에 맞는 예문을 ㉡이나 ㉢에서 찾으려 합니다. ㉢보다는 ㉡이 그 뜻에 조금 더 적절해보이죠? 그럼 답을 5번으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 역시 ‘시간’이라는 ‘대상’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 대한 ‘독해’가 문제풀이의 기본임을 생각하면, ㉡ 아래에 있는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라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과 관련된 문장인 ㉢은 ㉡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너무 과한 것 아니냐구요?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굳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발게'의 '-게'가 떠오를 수도 있고, '바투'라는 단어를 원래 잘 알고 있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 과정'을 체계화시키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문법 개념을 문제풀이에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외에도, 대부분의 고난도 문법 문제들은 위의 3단계를 거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문제만 더 살펴볼까요?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06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달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깅]
㉡	전세방[전세뻡]	아랫방[아래뻡]
㉢	버섯국[버섣국]	조갯국[조개국]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앞에서 설명한 3단계에 맞춰,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참고로 이번 문제의 해설에선, 이 문제를 풀 때 저지르는 멍청한 생각들을 하나씩 건드려 볼 겁니다. 그 속에 속하지 않도록, 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 테마 소개

두 번째 테마는 ‘문장 성분’입니다. theme 1의 ‘품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울 것이 정말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theme 1의 ‘품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 헷갈릴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주세요. 이 개념들은 다음 테마의 내용과도 이어 집니다. theme 1~30이 국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완벽하게 정복하기 전에는 절대 뒤로 넘어가 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도 시작해봅시다.

㉡ 지식 소개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쉽게 ‘역할’이라고 할게요.)을 하는 각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배운 ‘품사’가 단어의 ‘이름’이라면, ‘문장 성분’은 단어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셔야 해요. 국어의 단어들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래 표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품사 파트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표는 확실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구분	정의	실현 방법	예문
주성분	주어	1. 체언+주격 조사 2. 체언+보조사	민석이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공부는 생각보다 즐겁다.
	서술어	1. 동사 2. 형용사 3. 체언+서술격 조사	치타는 빨리 달린다. 하늘이 높다. 나는 학생이다.
	목적어	1. 체언+목적격 조사 2. 체언+보조사	민재가 과일을 먹는다. 진우가 축구만 좋아한다.
	보어	1. 체언+보격 조사	물이 얼음이 되다. 너는 학생이 아니다.
부속성분	관형어	1. 관형사 2. 체언+관형격 조사 3.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전성 어미 4. 용언의 어간+명사형 전성 어미+(관형격 조사)	나는 서점에 가서 새 책을 샀다. 나의 생각을 존중해줘. 어제 공부한 집에서 불이 났다. 영빈이는 음식을 먹기(의) 전에 물을 마셨다.
	부사어	1. 부사 2. 체언+부사격 조사 3. 용언의 어간+부사형 전성 어미	밥을 정말 잘 먹는다. 나는 지금 너에게 간다.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독립성분	독립어	1. 감탄사 2. 체언+호격 조사(-아/-야/-이여..)	아이코, 이 일을 어찌지? 민재야, 그것 좀 가져와.

예외적인 경우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 표의 내용 정도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문장 성분’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 개념들을 자세히 소개할 것인데, 개념들에 대한 공부나 제대로 끝난 뒤에 꼭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암기를 해야 해요. 물론 계속해서 백지에 쓰고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1.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골격이 된다는 말은, 특정 조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주어’와 ‘서술어’는 모든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에 해당하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물론 주어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의미상으로도 꼭 존재하고 있어요.)

(1) 주어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등의 문장 형태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실현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아래의 방식들이 왜 주어가 되는지 납득하면서 정리해보세요.

• 체언+주격 조사

먼저 ‘격 조사’에 대한 정리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격 조사’는 체언에 특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주격 조사’는 ‘체언에 주어의 역할을 부여하는 격 조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언+주격 조사’는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격 조사의 종류 ‘이/가/께서/에서’는 잊지 않았죠?

예 하늘이 푸르다. / 바다가 푸르다. /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 /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체언+보조사

보조사는 특정한 ‘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에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에도 쓰일 수 있으며, 부사어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뒤에서 살펴보고 우선 여기에서는 보조사가 주어에 사용되는 경우를 볼게요.

예 나는 밥을 먹는다. / 나도 밥을 먹는다. / 나만 밥을 먹는다.

• 용언의 어간+명사형 전성 어미+(조사)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명사형 전성 어미(-ㅁ/음, -기)’는 품사를 명사로 바꾸지는 않지만 ‘명사처럼’ 바뀝니다. 즉 완전한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용언의 어간+명사형 전성 어미’는 일반적인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사’의 성질을 잊지 마세요!

예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그를 만나기(가) 어렵다.

(2) 서술어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것이 서술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주어+서술어, 주어+서술어’로 이어진문장이라면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서술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다음 예시를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이번에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납득’해봅시다.

• 동사

동사는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품사입니다.

예 치타는 빨리 달린다. / 동생은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 형용사

만약 서술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동사인지는 형용사인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theme 1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예 하늘이 높다. / 그는 마음씨가 정말 곱다.

㉔ 행동 양식 정립

theme 3 역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부분이기때문에, 특별히 제시하고 싶은 행동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단어의 형성' 파트는 '경험'을 통한 '감'을 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간/어미/어근/접사'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으려면 말이죠. 여기서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보도록 합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 문제를 풀어 보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 보세요. 다음 문제에서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를 기본적으로 나누고, 합성어라면 어근과 어근, 파생어라면 어근과 접사까지 스스로 분석해 봅시다.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스스로 분류해보고, 정답과 비교해보세요! (의존 형태소임을 나타내는 '-' 기호를 쓰는 것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가 눈에 익으면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예

	어간	어미	어근	접사
먹다	먹-	-다		
먹었다	먹-	-었-, -다		
먹이다	먹이-	-다	먹-	-이-
헛먹다	헛먹-	-다	먹-	헛-
퍼먹다	퍼먹-	-다	푸-, 먹-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자랑스럽고				
치프니				
공부하여				
빛나다				
헛디뎠다				
되찾으시니				
뛰어가겠다				
열리다				
흘러서				
휘저어				
오르내리더니				
세우셨다				
짓밟혔음				
끓주린				
힘드시도록				
높푸르렀다				

[정답]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자랑스럽고	자랑스럽-	-고	자랑	-스럽-
치뜨니	치뜨-	-니	뜨-	치-
공부하여	공부하-	-아/어	공부	-하-
빛나다	빛나-	-다	빛, 나-	
헛디뎠다	헛디디-	-었- + -다	디디-	헛-
되찾으시니	되찾-	-(으)시- + -니	찾-	되-
뛰어가겠다	뛰어가-	-겠- + -다	뛰-, 가-	
열리다	열리-	-다	열-	-리-
흘러서	흐르-	-어서		
휘저어	휘젓-	-어	젓-	휘-
오르내리더니	오르내리-	-더- + -니	오르-, 내리-	
세우셨다	세우-	-(으)시- + -었- + -다	서-	-이우-
짓밟혔음	짓밟히-	-었- + -음	밟-	짓-, -히-
굴주린	굴주리-	-(으)ㄴ	굴-, 주리-	
힘드시도록	힘들-	-시- + -도록	힘, 들-	
높푸르렀다	높푸르-	-었- + -다	높-, 푸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헛갈리는 개념이 나와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theme 1~3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네요. 이쪽 테마의 개념이 비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문법은 부담스럽기만 한 존재가 될 겁니다. 지겹더라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복습하고 또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합시다.

㉠ 기출문제 풀이

01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06.고1)

[보기]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 ① 자립 형태소는 모두 4개이다.
- ② 형식 형태소는 모두 3개이다.
- ③ 의존 형태소는 모두 5개이다.
- ④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모두 2개이다.
- ⑤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모두 2개이다.

02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03)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의 ㉠~㉣에서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03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11A)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04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2013.10)

[보기]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05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2018.04)

[보기]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군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0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5.03A)

[보기]

선생님: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춥다 (단일어)	춥-	춥-
치춥다 (파생어)	치춥-	춥-
쌌춥다 (합성어)	쌌춥-	쌌, 춥-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줄이- ㉡ 힘들- ㉢ 오가-
① 줄이- ② 힘들- ③ 오-, 가-
④ 줄- ⑤ 힘들- ⑥ 오가-
⑦ 줄- ⑧ 힘, 들- ⑨ 오-, 가-
⑩ 줄- ⑪ 힘, 들- ⑫ 오가-

07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04A)

[발표 내용]

발표 1: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무당'은 어근 '무당'에 접두사 '선-'이 결합하여 '서툰'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군말', '군살'도 그 예에 속합니다.

발표 2: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보'는 어근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발표 3: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하다'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 ① '발표 1'의 내용 중 '군말', '군살'의 '군-'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
② '발표 1'과 '발표 2'를 종합해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
③ '발표 2'의 단어에 '멋쟁이', '장난꾸러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④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피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⑤ '발표 3'에는 '숙제하다'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㉔ 행동 양식 정립

사실상 ‘행동 양식’을 정립하는 것이 전부인 theme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수능 언어(문법) 문제의 핵심은 ‘독해와 탐구’입니다. Intro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가져올까요?

- 1) 발문 독해 : 문제의 발문을 천천히 ‘독해’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지 생각하기
- 2) <보기> 독해 : <보기>의 내용을 천천히 ‘독해’하며 1)에서 생각한 내용 적용하기
- 3) 선지 독해 :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1) + 2)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 고르기

자세한 예시는 Intro에서 소개했었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글자를 꼼꼼하게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며 풀 것! 이 교재의 이름은 ‘생각의 전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풀게 될 겁니다.

이런 태도를 생각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귀찮다면, 그냥 간단하게 ‘독서 지문을 읽듯이 <보기>와 지문 내용을 읽고 푼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없다고 대충 읽고 넘어가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차분하게 읽고 푸는 태도가 오히려 시간 단축을 가져다 준다는 것. 잊지 맙시다.

나아가 최근 자주 출제되는 ‘지문형 문법’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봅시다. 마치 독서 지문처럼 긴 지문을 바탕으로 두 문제를 묻는 형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처럼’ 푸셔야 합니다. 독서 지문을 읽듯이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독해하며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특히 최근 수능에 나오는 ‘지문형 문법’ 문제들을 보면 아래처럼 그냥 독서의 ‘내용일치 문제’와 다를 게 없거든요.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11)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이처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냥 지문의 내용을 잘 ‘독해’했는지 묻는 형태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번 관련된 지문을 읽고 풀어볼까요? 정말 ‘독서 지문’처럼 읽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 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 ㉠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써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울 것.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을 것.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을 것.
-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 될 것.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 될 것.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두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빚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를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 | |
|--------------|------------|
| ① 빚쟁이 | ② 빚쟁이, 금방 |
|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
| ⑤ 빚쟁이, 뒤, 금방 | |

먼저 지문부터 완벽하게 독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우리가 배운 내용인 ‘다의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문형 문법 문제는 ‘독서 지문처럼’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된 ‘배경지식’이 많은 상황에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의어’에 대한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 가볍게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언어 습득의 시기’, ‘사용 빈도’라는 비교 포인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심’이니까 ‘습득 시기’도 빠르고 ‘빈도’도 높겠죠. 가볍게 납득하며, ‘다의어의 특징’이라는 화제 잡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다의어의 특징’입니다. 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 ‘문법적 제약’이 있다는 특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해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이 ‘문법적 제약’이 ‘사동·피동형 불가’, ‘결합하는 용언의 수 적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의어’가 가지는 두 번째 특성으로는 ‘주변 의미의 추상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확장=추상성 강화’라는 재진술도 볼 수 있으면 훌륭하겠구요. 계속해서 ‘주변적 의미’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파악해주시면 더 완벽하겠습니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 ㉑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의미상 관련성’이었습니

그런데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그런데 이런 ‘다의어의 의미’들이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립적’이라도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는 게 핵심이네요.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 습득 시기’, ‘사용 빈도’, ‘문법적 제약’, ‘추상성 강화’, ‘대립적 관계’와 같은 내용들은 미리 알고 있기 어려운 개념들이죠? 어떤 것이 나올

지도 모르는데 방대한 문법 개념을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지문형 문법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냥 독서 지문처럼 읽고 푸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11 ⑤

①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은 ‘주변 의미’이고, ‘천체의 일부’는 ‘중심 의미’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한국인의 감으로 파악할 수 있죠? ‘중심 의미’의 ‘습득 시기’가 더 빠르므로 맞는 선지네요.

② 1번 선지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사용 빈도’에 대해 묻는 선지입니다. ‘착석하다’가 ‘중심 의미’이니 더 많이 쓰이겠죠?

③ 관련성 없으면?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입니다. 관련성이 없다는 것도 한국인의 감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④ 사동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면? ‘중심 의미’가 아닌 ‘주변 의미’!

⑤ ‘확장 = 추상성 강화’였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지문의 내용을 거스르네요.

12 ②

– ‘대립적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 지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빛쟁이 : 민수가 말하는 ‘빛쟁이’는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민수의 두 번째 대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죠? 한편 영화가 말하는 ‘빛쟁이’는 ‘돈 빌린 사람’이네요. 영화의 대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 준 사람’. 각각 ‘빚’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며 의미가 ‘대립’되는 상황이네요.

뒤 : ‘이틀 뒤’와 ‘발표 끝난 뒤’ 모두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죠? 전혀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금방 : 영화가 말한 ‘금방’은 ‘아까’라는 ‘과거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민수가 말한 ‘금방’은 ‘곧’이라는 ‘미래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완벽한 ‘대립적 관계’입니다.

돈 : 돈은 그냥 money죠? 딱히 ‘대립적 관계’를 가진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하면 상당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의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두 문제를 풀면서, ‘문법’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독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문법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도 지문을 잘 ‘독해’하기만 하면 답을 고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독해’만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평가원에서 이런 형식의 출제를 선호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이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어(문법)에서도,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하면 ‘독해와 탐구’에 대한 준비도 끝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며 수능 언어(문법)에 대한 기출 분석에 나서봅시다. 앞에서 배운 3단계의 풀이과정을 최대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출제된 문제부터 연도순으로 배열했으나, 마지막에는 역대 가장 어려웠던 기출문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형 문법’ 문제들은 마지막에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모아두었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안겨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네요.

① 반대로 썼죠? ㉠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에는 ‘벼농사에’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②③ 둘 다 명사절만 안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④ ㉠의 안긴문장은 ‘내가 노래를 부른다.’이고, ㉡의 안긴문장은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하다.’입니다. 역시 반대로 쓴 선지네요. 전자에는 관형어가 보이지 않지만, 후자에는 ‘이’, ‘지역’과 같은 관형어가 보입니다.

⑤ ㉠의 안긴문장에는 ‘노래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간단하죠? 계속 해봅시다.

09 ③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그는 삼았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삼았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좋은’이 보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전성어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찾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결국 ‘(기회가) 좋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바다가 파랗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파랗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눈이 파랗다’가 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눈이 부시’게’가 보입니다. 부사형 전성어미네요.

결국 ‘눈이 부시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동주는 응시했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응시했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4) 전성어미 찾기

이번에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보입니다. 반짝이’는’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찾을 수 있네요.

결국 ‘(별이) 반짝인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네요.

① 뜬금없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고 있네요.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모두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 문장에서 그 어떤 단어도 생략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② ‘바다가’는 문장의 진짜 주어, 즉 ‘파랗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이고 ‘눈이’는 안긴문장의 주어, 즉 ‘부시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죠. 맞는 말입니다.

③ ‘별을’은 안은문장에서선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안긴문장에서는 생략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역시 미리 체크해 둔 내용이네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 모두 안긴문장의 서술어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만나 관형절이 된 모습이죠?

⑤ 각각 부사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니 맞는 말입니다.

10 ②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그녀는 기다린다.’

2) 인용절 찾기

‘-라고/-고’ 모두 없습니다.

3) 서술절 찾기

‘기다린다’에 걸리는 다른 주어도 없습니다. ‘봄’은 기다림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요.

4) 전성어미 찾기

먼저 따뜻’한’에서 ‘-ㄴ’이 보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네요. 뿐만 아니라 빨리 오’기’에선 명사형 전성어미도 찾을 수 있네요. 전성어미가 무려 두 개나 쓰인 모습입니다.

현대 국어에선 ‘흘다’가 아닌 ‘흘어지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흘다’의 쓰임 변화 파악이기 때문에, ‘흘어지다’를 가지고 ‘흘다’의 자동사/타동사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흘어지다’ 역시 ‘-어지다’를 사용한 통사적 피동문이죠? 현대 국어의 ‘흘다’ 역시 목적어 없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피동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네요.

3) 선지 독해 : 결국 정리하면, ‘열다’와 ‘흘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쓰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어 없이 쓰려면 반드시 ‘피동사’로의 형태 변화가 필요해요!

이번에도 <보기> 독해를 바탕으로 ‘열다’와 ‘흘다’의 쓰임 변화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중구난방식으로 해결하면 5번을 고르기 너무 쉽습니다. ‘열리다/흘어지다’가 ‘열다/흘다’와 다른 단어라는 걸 망각하기 쉬운 <보기> 구성이니까요. ‘독해와 탐구’ 잊지 맙시다!

44 ①

1) 발문 독해 : 이번에도 별거 없네요. 원래 이 문제는 지문형 문법의 일부였습니다.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2) <보기> 독해 : <보기 1>은 지문의 일부입니다. 꼼꼼하게 독해해 봅시다.

[보기]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름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보조사가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기 2>를 보면서 조금 더 깊게 탐구해볼까요?

먼저 <보기 2>는 중세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로 오기까지 인칭 대명사 ‘누구’의 변화 양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세 국어 : <보기 1>에 따르면, 중세에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누고/누구’가 사실은 ‘누 + 고/구’의 구성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누’가 바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가 되겠네요.

근대 국어 : 중세 국어에서 만들어져 굳어진 ‘새로운 인칭 대명사’에는 ‘누고’와 ‘누구’가 있습니다. ‘누고고’와 ‘누구고’는 여기에 보조사 ‘고’가 붙은 형태네요.

현대 국어 : 현대에는 ‘누구’ 자체만 인칭 대명사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보조사 ‘고/구’가 붙는 게 아니라, ‘를, 에게’ 같은 격 조사가 붙는 모습이죠?

이 탐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네요.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이를 먼저 봤다면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 + 고/구’ → ‘누고/누구’가 한 단어 → ‘누구’만 남음>이라는 흐름을 정확하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3) 선지 독해

① 중세 국어의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밖에 없습니다. ‘누고’와 ‘누구’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일 뿐이죠. 이 단어들이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단어가 된 것이구요.

② 근대 국어에서는 ‘누고’와 ‘누구’가 인칭 대명사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③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만 존재한다고 했죠?

④⑤ 역시 탐구한 결과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핵심은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와 ‘보조사가 붙은 형태’를 ‘독해’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45 ⑤

1) 발문 독해 :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봅시다.

2) <보기> 독해 : 선생님의 설명을 보니, ‘피동사/사동사’ 여부와 함께 ‘단어의 의미’에도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피동사/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찾아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 ㉡은 각각 ‘피동문’, ‘사동문’이었네요.

3) 선지 독해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므로 피동문이고,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니 사동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는 걸 독해해 둔 상태입니다. 제시된 ‘갈다’의 의미는 ‘사람을 대체하다.’의 의미네요. 그런데 ㉠의 ‘갈다’는 사람이 아닌 텃밭을 가는 것이니,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니 피동문이고,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니 역시 피동문입니다. 애초에 ‘피동-사동’이 아니네요.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니 사동문이고,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니 역시 사동문입니다. 애초에 ‘피동-사동’이 아니네요.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니 사동문이고, ‘큰형이 동네 개에서 발을 물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니 피동문입니다. 애초에 ‘피동-사동’이 아니네요.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므로 피동문이고,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게 했다.’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므로 사동문이네요. ‘피동-사동’의 쌍은 맞는데,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도 부합하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제시된 ‘쓸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과 ㉡의 예시 모두가 의미에 부합하죠? 정답을 찾았습니다.

‘피동/사동’을 구별하는 이 방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독해력’을 의심하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읽은, 혹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46 ③

1) 발문 독해 : 〈학습 활동〉을 해결해봅시다.

2) 〈보기〉독해 :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관형사형 어미 체계’를 완성해보는 활동입니다. 일단 [자료]의 단어들부터 분석해볼까요?

㉠ 하늘에 뜬 태양 : ‘뜨다’는 ‘뜨다’가 가능하므로 ‘동사’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애매해요. 과거에 뜬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여러분의 애매한 주관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의 [표]를 ‘독해’해봅시다.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 -(으)ㄴ
과거	㉧ : -(으)ㄴ	㉨ : -던
	-던	
미래	-(으)ㄹ	-(으)ㄹ

다시 말하지만, ‘뜨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뜬’에 쓰인 어미 ‘-(으)ㄴ’의 모습이 위 표의 ‘동사’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동사에서 ‘-(으)ㄴ’은 무조건 ‘과거’ 시제를 나타내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말이 ‘-(으)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 시제가 ‘과거’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부르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품사는 ‘동사’입니다. 또한 위의 표를 보면 ‘-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으니,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물론 표의 내용이 없어도 맥락 자체가 ‘과거’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지만요.

㉣ 늘 푸르던 하늘 : ‘푸르다’가 가능하지 않으니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시제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니까요. 그럼 ㉣에 들어갈 말은 ‘-던’이 되겠죠?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남는다’가 가능하므로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번에도 시제가 애매한데, 위의 표를 미리 채워둔 덕에 ‘과거’ 시제임을 쉽게 알 수 있죠? ‘-(으)ㄴ’이라는 어미가 쓰였으니까요.

㉥ 네가 읽는 소설 : ‘읽다’가 가능하므로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는’이라는 어미가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찬다’가 가능하므로 품사는 ‘동사’입니다. 이번에도 ‘-(으)ㄴ’이라는 어미가 쓰인 것으로 보아 시제는 ‘과거’겠네요.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 ‘빠르다’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표에 없는 어미인 ‘-(으)ㄴ’이 쓰였죠? 이걸 빈 공간인 ㉠, 즉 ‘현재’ 시제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보기〉독해를 바탕으로 표의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푸는 걸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3) 선지 독해

㉠ ㉡의 ‘뜬’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합니다.

㉡ ㉢의 ‘부르던’의 ‘-던’은 ‘동사’ 열의 ‘-던’에 해당하죠? ㉣의 ‘푸르던’의 ‘-던’이 속한 ㉣과는 다릅니다.

기' 정도가 있겠네요. 이들 중 같은 계층에 서로만 있는, 즉 두 개의 공하의어만 존재하는 '상보적 반의 관계'는 '북극-남극'밖에 없습니다. 답은 쉽게 1번이네요.

[56~57]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발', '술', '이틀'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 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 것과 같은 현대 국어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지문입니다. 이제부터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이라는 단어의 옛 모습이 나오겠죠? 이로부터 이들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탐구해봅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사적 사실을 탐구해야겠죠.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발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발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 가락(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발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먼저 '발가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발 가락'의 형태라고 하네요. '발가락'은 'ㄹ'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관형격 조사였던 ㅅ이 소실되면서 ㄹ은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이네요. 어렵지 않죠?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솔’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번엔 ‘소나무’입니다.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굳어져 ‘ㄹ’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네요.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물 사름’에서 온 ‘못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엔 ‘ㄹ’이 ‘ㄷ’으로 변한 형태인 ‘이튿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가락’처럼 ‘이튿 + 날’도 원래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중세 국어에선 ‘이튿 날’로도 쓰였는데, 이게 근대 국어로 오면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졌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대로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게 되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8 종성법 → 7 종성법)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끝소리 ‘ㄹ’인 말(이튿)과 딴 말(날)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튿날’이 아닌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튿 날 → 이튿날 → 이튿날’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이네요.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ㄹ’이 ‘ㄷ’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납득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이튿날’로 쓰는 것이 맞으니까요.

지문이 꽤나 까다로웠지만, ‘독서 지문처럼’이라는 기본 태도만 갖춰져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ㄹ’이 그대로 있는 경우, ‘ㄹ’이 탈락하는 경우, ‘ㄹ’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 지문이었습니다. 각각 ‘관형격 조사의 소실’, ‘합성 명사에서의 음운 규칙’, ‘관형격 조사의 소실 및 7 종성법으로의 변화’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ㄹ’이 ‘ㄷ’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제대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56 ②

– ㉠~㉣의 사례를 하나씩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무술(물 + 술) : 원래 있던 ㄹ이 탈락한 모습입니다.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죠?

쌀가루(쌀 + 가루) : 원래 있던 ㄹ이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쌀가루’는 ‘쌀의 가루’이니, 원래 ‘쌀 가루’였던 것이 관형격 조사 ‘ㅅ’이 소실되면서 ‘쌀가루’가 된 모습이죠?

남알(남 + 알) : 이 지문의 핵심은 ‘ㄹ’의 변화 양상입니다. ‘남알’은 원래부터 받침이 ‘ㄷ’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묻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지문의 화제,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 등을 ‘독해’해야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남알’의 ‘ㄷ’만 보고 답으로 골라 놓고, ‘남알’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해요!

술방울(술 + 방울) : ‘쌀가루’와 같은 예시입니다. 원래 있던 ㄹ이 관형격 조사 ㅅ의 소실로 그대로 있는 모습이네요.

섯달(설 + 달) : 이번에는 ‘ㄹ’이 ‘ㄷ’으로 변한 예시네요. 원래 ‘섯달’이었던 것이 ‘섯달’로 굳어졌다가 7 종성법으로 변화하면서 ‘섯달’이 된 모습이네요.

푸나무(풀 + 나무) : ㄹ이 탈락한 모습입니다.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것이네요.

이를 지문에 제시된 순서대로 배열하면,

‘쌀가루, 술방울 / 무술, 푸나무 / 섯달’이 되겠네요. 이 순서를 지킨 선지는 2번 선지밖에 없죠?

57 ⑤

– ‘술가락’과 ‘젓가락’의 받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는 ‘국어의 변화 과정’이므로, 이 <보기>에서도 ‘술가락’과 ‘젓가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차분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풀면 답이 없어요!

술가락) 술/숯 → 숯가락 → 술가락 : ‘이튿날’과 비슷한 예시네요. ‘ㅅ’의 소실, 7 종성법으로 변화 등이 ‘술가락’이라는 발음을 만든 상황입니다.

젓가락) 저/젓 → 젓가락 : 원래부터 나타나던 ‘ㅅ’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단의 ‘국어의 변화 과정 고려’가 떠올라야 합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던 내용과 직결되니까요! ‘술가락’은 변화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젓가락’은 변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잡아놓고 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중세 국어에서는 ‘술’과 ‘저’ 모두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국어의 ‘술’은 ‘한’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의존 명사’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② 그러네요. 중세 국어 부분을 보시면, ‘술’과 ‘저’가 합쳐서 ㄹ이 탈락한 ‘수저’가 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어의 ‘수저’가 된 모습입니다.

③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이죠? ‘ㅅ’이 결합한 ‘숯’, ‘젓’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④ 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숯가락’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⑤ ‘술가락’이든 ‘못사람’이든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은 동일합니다. 현대 국어의 ‘ㄷ’ 발음이겠죠. 하지만 ‘술가락’은 변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못사람’은 변화 과정을 고려했기에 ‘ㅅ’ 받침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술가락/이튿날’ 계열과 ‘젓가락/못사람’ 계열의 발음이 다른 이유, 즉 ‘변화 과정 반영’이라는 이유를 미리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서 지문을 푸는 것과 똑같죠? 애초에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지문형 문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58~59]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라는 예시를 들면서, ‘어휘적 빈자리’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 정의입니다. ‘어휘적 빈자리’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네요. 먼저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저리주저리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네요.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 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푸른 빛깔과 같이 푸른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